

청소년의 온·오프라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자살 생각의 관계: 사회자본(가족, 학교, 지역사회)을 조절효과로

장아영* · 김순규** · 이명홍*** · 박신애****

I 알기 쉬운 개요

청소년 자살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은 자살을 생각할 기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사이버폭력도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의 심리적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이 온·오프라인에서 겪는 학교폭력이 자살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지지가 그 영향을 줄이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전국 중·고등학생 5,860명의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자살을 고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교사와의 신뢰 관계나 학교에 대한 소속감처럼 학교 안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은 자살 생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지지는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살 위험에 놓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에서의 관계 회복과 정서적 지지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중심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교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학교폭력 발생 시 신뢰할 수 있는 개입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ay5588@naver.com

**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2저자, 교신저자, soongyu@jnu.ac.kr

***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수료,
제3저자, hglx_0718@163.com

**** 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부, 조교수,
제4저자, stella25@woosuk.ac.kr

투 고 일 / 2025. 5. 2.

심 사 일 / 2025. 6. 19.

심사완료일 / 2025. 7. 17.

I 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온·오프라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자살 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사회자본이 조절변수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자본은 가족자본, 학교자본, 지역사회자본의 세 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분하여 조절효과를 각각 살펴보았다. 연구 분석에는 한국아동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2년에 실시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자료는 전국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 중인 청소년 5,86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전국 대표 표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결과, 온·오프라인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자살 생각을 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이 청소년의 심리적 고통과 자살위험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특히 온라인 폭력의 경우, 공간적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피해가 이루어질 수 있어 그 심리적 영향이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세 가지 사회자본 중 학교자본만이 유의미한 완충효과를 나타냈다. 즉, 학교 내 또래 및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소속감, 상호 신뢰 등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피해가 자살 생각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가족자본과 지역사회자본은 이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아, 폭력 피해 상황에서 학교가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보호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개입 전략에서 학교 환경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특히 학교 내 지지체계 구축과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온·오프라인 학교폭력이라는 현대적 문제를 다루면서,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대한 사회적 보호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학교자본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향후 학교 기반의 예방 프로그램 및 상담 개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주제어: 온·오프라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 자살 생각, 가족, 학교, 지역사회

I. 서 론

2000년 이후, 10대 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자살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22년에는 청소년 자살률이 10만 명당 7.6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통계청, 2023). 또한, 청소년의 자살 생각률은 성인의 5.4%에 비해 14.0%로 나타나, 청소년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살을 고민하는 비율이 2.6배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국민일보, 2023. 10. 23). 비록 자살을 고민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살을 실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을 고민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자살 시도의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Lyon et al., 2000). 이러한 점에서 자살 생각은 자살 시도 및 자살 행동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Gould, Greenberg, Velting & Shaffer, 2003).

청소년의 자살 생각은 다양한 위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문동규(2011)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는 학교생활 및 학업 관련 스트레스이며, 특히 학교폭력 중에서도 집단 따돌림과 폭행 등의 경험이 청소년기의 자살 원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기는 또래 집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로(장선희, 이미애, 2010), 또래로부터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자살 생각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유발하며, 이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된다(서고운, 2021).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는 자살 위험성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살 시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Bauman, Toomey & Walker, 2013; Hinduja & Patchin, 2010). 특히, 학교는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학교 내에서의 폭력 경험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외상을 초래하며, 나아가 자살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김순규, 2008). 또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의 38.8%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보고되었으며(이종익 외, 2023), 이는 학교폭력이 청소년 자살의 주요 위험 요인임을 나타낸다.

학교폭력 피해의 장소는 대부분 학교 내에서 발생하며(68.8%), 그 외에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6.3%)가 증가하는 추세이다(교육부, 2023). 이러한 배경을 반영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을 “학교内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모든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제19942호, 시행: 2024. 3. 1), 이는 폭력이 발생하는 장소와 수단에 관계없이 청소년 간 폭력을 포괄적인 의미를 말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함께 온라인 의사소통이 증가하면서 사이버폭력

의 피해 역시 증가했다.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온라인 폭력을 경험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2.4% 증가한 수치였다. 사이버폭력은 모욕적인 메시지 전송, 신상 유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 및 동영상 배포 등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Smith, 2012;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3), 피해 청소년의 심리적 고통이 더욱 가중되었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 청소년의 삶 전반에서 발생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외로움, 우울증, 불안감 등의 유발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김수연, 최진아, 2018; 유선아, 2022; 이병도, 최용렬, 2016; 양방원, 유선아, 2022). 즉, 학교폭력 문제는 피해 장소와 수단에 관계없이 하나의 통합된 경험으로 간주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온·오프라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청소년의 자살 생각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청소년의 자살 생각은 개인이 속한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Rich & Bonner, 1987). 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는 대부분 가족, 친구, 학교, 지역사회와 같은 주요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되기 때문에(고혜주, 2016),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자살 생각의 관계를 분석할 때 사회자본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자본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내의 지원 네트워크와 관계망을 포함하며, 이는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자살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의 지지와 긍정적인 양육 태도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자살 생각 간의 관계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고 보고했으며(김치진, 2018; 심혜인, 김동현, 곽대경, 2020; 하진의, 2014), 또래 및 교사와의 원만한 관계, 그리고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살 생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빈, 2016; 서고운, 2021). 이처럼 사회적 관계망 내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은 청소년의 자살 위험을 낮추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지역사회자본 역시, 지역사회 내의 친밀한 유대관계와 강한 사회적 연결망은 청소년의 자살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준도 향상되는 경향이 있었다(이정선, 2005; 서정아 외, 2012; 조계영, 2021).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자본의 여러 구성 요소 중 한 가지 요인만을 독립적으로 분석 한 경우가 많아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자살 생각 사이의 관계에서 사회자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자본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살 생각과 같은 부정적인 사고를 완화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이버폭력과 관련해서도 사회자본은 자살 생각을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부모

의 지지(나지훈, 성혜연, 이성규, 2023; 박성원, 윤현정, 2023), 또래 애착(권문자, 2014), 그리고 사회적 지지(방서현, 2023; 전진호, 이성규, 2022)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살 생각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자본이 온라인 폭력으로 인한 자살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온·오프라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자살 생각 간의 관계에서 사회자본(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자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问题是 첫째, 청소년의 온·오프라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둘째, 사회자본(가정, 학교, 지역사회)이 청소년의 온·오프라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조절하는가? 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 자살

자살 생각은 자신을 해치거나 죽으려는 사고로 정의되며(Bridge, Goldstein & Brent, 2006), 이는 단순히 죽고 싶다는 막연한 감정에서부터, 자살을 실천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운 상태를 포함하되, 실제 실행에 옮기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Maris, Berman & Silverman, 2000). 즉, 자살 생각은 자살에 대한 강한 의도를 나타내는 선행적 사고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자살 행동에 대한 강력한 예측 요인으로 작용한다(Nock et al., 2013; O'Connell, Chin, Cunningham & Lawlor, 2004).

청소년기의 자살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특히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22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자살 시도율은 3년 연속 증가하며, 2022년에는 2.7%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청소년 자살률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청소년 사망 원인 중 1위로 자살이 자리잡고 있다(통계청, 2023). 이처럼 청소년 자살 문제의 심각성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학교 성적, 가족 갈등, 또래 및 선후배와의 갈등 등이 있으며(김영지, 유설희, 김수진, 2016), 학교폭력은 청소년 자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 학교폭력은 학교 관련 스트레스 다음으로 청소년 자살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김보영, 이정숙, 2009). 또한, 문동규(2011)의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및 학업 스트레스가 청소년 자살 생각에 주요한 유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학교폭력의 한 형태인 온라인폭력 역시 청소년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자살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나지훈 외, 2023; 홍성희, 2022; 정지선, 2021; 유선아, 2022).

청소년의 자살 생각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문제 해결에 대한 부족한 대처 능력과 관련이 깊다. 스트레스 대처 이론(Lazarus & Folkman, 1984)에 따르면, 개인은 자원을 통해 다양한 스트레스 자극에 대처하며,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는 개인의 능력, 사고,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즉, 또래 관계나 학교폭력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청소년은 대처 능력이 저하되어 부정적인 감정과 정서가 증대되고, 이는 자살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청소년의 온·오프라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이미 입증하였다(박성원, 윤현정, 2023; 박현주, 2019; 유숙경, 박현선, 2021; 이병도, 2016; 정지선, 2021; 하진의, 2014). 예를 들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은 자살 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으며(Bakken & Gunter, 2012), Turner, Finkelhor, Shattuck and Hamby(2012)의 연구에서도 또래 괴롭힘 피해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살 생각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자살 생각은 온·오프라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의해 촉발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2. 청소년 학교폭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内外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942호, 시행: 2024. 3. 1). 즉, 학교폭력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교폭력 실태를 다룬 선행 연구에 따르면, 1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조사 대상자의 48%에서 51.4%에 달하며(백진숙, 2013), 이는 연구 대상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학교폭력을 경험했음을 보여준다. 학교폭력의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3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체 폭력(17.3%), 집단따돌림(15.1%), 강제 심부름(7.8%), 사이버 괴롭힘(6.9%) 순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3). 학교폭력 피해 장소는 대부분 학교 내에서 발생하였으며(68.8%), 사이버 공간에서도 상당히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교육부, 2023).

이러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피해 청소년들이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그 결과 자살 생각을 유발할 수 있다(Watt & Sharp, 2001). 실제로 학교폭력예방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의 38.8%가 자살과 자해 충동을 느꼈다고 보고되었으며(학교폭력예방재단, 2013), 이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청소년 자살의 중요한 위험 요인임을 시사한다.

3. 사회자본과 온·오프라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 및 자살생각의 관계

사회자본은 “주어진 환경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하도록 유도하고 촉진하는 사회적 관계 내에 내포된 사회자원”으로 정의된다(Coleman, 2000; 서정아 외, 2012에서 재인용). 김상준(2004)은 사회자본을 포괄적인 사회관계 안에서 각 개인이 가진 자원과 소속된 집단에서 해당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적 기회 자원으로 설명하며, 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는 주로 가족, 친구, 학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한다(고혜주, 2016). 따라서 청소년기의 사회자본은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의 사회자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청소년과 사회자본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부모 및 또래의 지지가 긍정적으로 지각될 경우 우울이 낮아지고(이선영, 송주연, 2019), 또래 간의 애착이 높을수록, 교사 애착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현의숙, 황혜정, 2019). 또한 청소년기 동안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자기 효능감과 자아정체감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송현옥, 최성열, 박아청, 2010).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지지와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은 경험이 부정적인 감정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우울(유선아, 2022; 홍성희, 2022), 자살 생각(서희웅, 2020; 양방원, 2016; 유경, 2020) 등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회적 지지나 관계로 대표되는 사회자본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모의 긍정적인 지지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은 지역사회에서는 학교 적응이 향상되며(서정아 외, 2012), 부모의 관여가 높고 학교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청소년기의 일탈 행동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이재영, 공태명, 2010). 이를 통해 청소년기 사회자본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자살 생각 간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자살 생각 간의 관계에서 부모 양육 태도가 긍정적일수록(나지훈 외, 2023; 하진의, 2014), 부모의 의사소통이 많을수록(임시온, 2023) 자살 생각이 낮아진다

는 연구가 있었다. 또한 친구의 지지와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김수빈, 2016; 김정유, 2020),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백진숙, 2013; 조연직, 2018) 자살 생각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자살 생각 간의 관계에서 지역사회 자본이 직접적으로 설명되는 연구는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지역 환경이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장지현, 2018)와 지역사회 및 경제적 특성이 청소년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박성준, 2019)를 통해, 지역사회 환경이 청소년의 자살 생각을 완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자살 생각 간의 관계에서도 사회자본은 자살 생각을 낮추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자본을 부모, 친구, 사회적 지지 등 단일한 요인으로 분석하여 사회자본을 단편적으로 다룬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가족, 학교, 지역사회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온·오프라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자본의 조절 효과를 통해 청소년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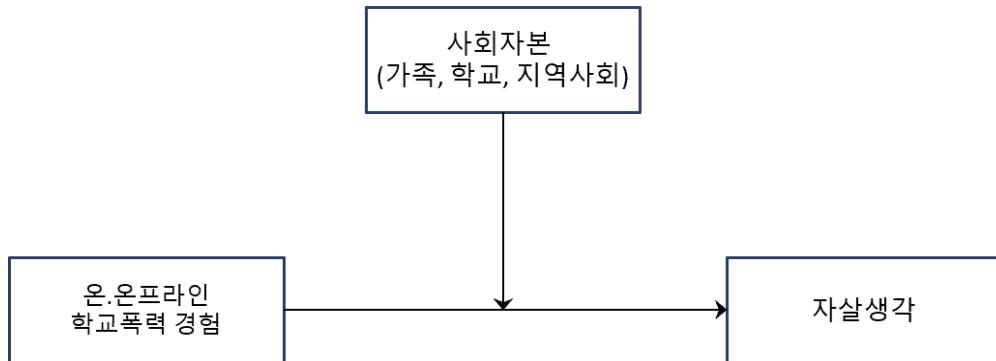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2년에 수행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조사는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다단계 층화집락추출법을 통해 표본을 선정하여 총 8,854명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으로 표본을 한정하여, 총 5,86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자살생각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은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Likert 방식의 3점 척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1점)’, ‘가끔 생각한다(2점)’, 자주 생각한다(3점)에 응답을 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온·오프라인 학교폭력피해경험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국가법령에 따라 학교 내 발생하는 학교폭력과 사이버 폭력 피해를 종합해서 측정한다. 학교 내 폭력피해 경험은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에서 선배, 후배, 친구들부터 경험한 폭력의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7개 문항의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한 번도 없음(1)~1주일에 3회 이상(5)를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버폭력 피해는 최근 1년 동안 인터넷(채팅, 게시판 댓글, 페이스북 등 SNS)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협박을 당함, 성희롱(놀림)을 당함,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인터넷(게시판 댓글, 채팅, 페이스북 등)에서 당함의 5개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한 번도 없음(1)~ 1주일에 3회 이상 (5)로 구성되었다.

3) 사회자본

(1) 가족사회자본

가족 사회자본은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와 지원을 포함하는 관계적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

된다(천정웅, 박선희, 2016). 이를 기반으로 가족 사회자본은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자원으로 정의될 수 있다(이재영, 공태명, 2010). 본 연구에서 가족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부모님(보호자)은 가정 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상급학교 진학을 결정할 때 부모님(보호자)도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장래희망을 선택할 때 부모님(보호자)도 내 희망을 존중해 주신다”, “부모님(보호자)은 공부 방법이나 시간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문항들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된다.

(2) 학교사회자본

학교사회자본은 학교 내에서 형성되는 관계, 규범, 그리고 우호적인 학교 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최준호, 2010; 이재영, 공태명, 201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교 사회자본의 특성에 맞춰 문항을 설정하였다. 학교사회자본 문항은 “학교는 규칙이나 규정을 수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학교는 학생의 동의 없이 가정환경이나 민감한 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다”, “학교는 학생이 징계를 받을 경우 그 이름을 공개한다”, “선생님은 학생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로 설정되었다. 이 문항들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되며, 일부 문항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사회자본이 높음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3) 지역사회자본

지역사회자본은 본 연구에서 범죄나 사고로부터의 안전성을 지역사회자본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여, 해당 요소에 초점을 맞춘 문항을 구성하였다(천정웅, 박선희, 2016). 지역사회자본을 측정하는 문항은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와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로 설정되었으며, 이들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된다.

(4)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성별, 주관적 경제수준, 학업성적, 학교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성별은 남자를 0, 여자를 1로 설정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주관적 경제수준과 학업성적은 각각 상, 중, 하를 1~3점 척도로 설정하였으며, 역코딩을 통해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수준과 학업성적이 높은 것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학교는 중학생을 0, 고등학생을 1로 설정하여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4. 분석 방법

연구 분석을 위해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주요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살펴보았다. 셋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자본(가족, 학교, 지역)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Hayes, 2018).

IV.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총 5,860명 중 남자가 2,824명(48.2%), 여자가 3,036명(51.8%)으로 여자가 3.6% 많았다. 주관적 경제수준은 ‘하’ 2,958명(51.0%)으로 가장 많았고, ‘중’ 2,249명(38.4%), ‘상’ 591명(10.2%)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학업 수준은 ‘중’ 2,509명(43.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하’ 1,689명(29.1%), ‘상’ 1,603명(27.6%)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중학생이 2,996명(51.1%)로, 고등학생은 2,864명(48.9%)로 중학생이 근소하게 많았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2,824	48.2
	여자	3,036	51.8
주관적 경제수준	상	591	10.2
	중	2,249	38.4
	하	2,958	51.0
주관적 학업성적	상	1,603	27.6
	중	2,509	43.3
	하	1,689	29.1
학교	중학교	2,996	51.1
	고등학교	2,864	48.9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수의 특성과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 각 변수의 왜도 절댓값이 2를, 첨도 절댓값이 7을 넘지 않아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상관계수가 -.150에서 .181 사이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으며, 분산팽창계수(VIF)도 1.010에서 1.806 사이에 분포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주요변수 기술통계

변수	Mean	SD	Min	Max	Skewness	Kurtosis
학교폭력 피해경험	1.089	.253	1.00	5.00	.395	.126
가족자본	3.430	.552	1.00	4.00	-.978	.064
학교자본	3.244	.492	1.00	4.00	-.740	.065
지역사회자본	3.029	.653	1.00	4.00	-.596	.064
자살 생각	1.39	.591	1.00	3.00	1.239	.064

표 3
주요변수 상관관계

변수	학교폭력피해 경험	가족자본	학교자본	지역사회자본	자살 생각
학교폭력피해경험	1				
가족자본	-.103**	1			
학교자본	-.150**	.153**	1		
지역사회자본	-.106**	.158**	.181**	1	
자살 생각	.198**	-.194**	-.099**	-.132**	1

* $p < .05$ ** $p < .01$, *** $p < .001$

3.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 경험과 가족·학교·지역사회자본, 자살 생각과의 관계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 경험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가족, 학교, 지역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1번 모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다중공선성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평균중심화 한후 분석했다(표 4 참조).

모델 1은 통제변수인 성별과 경제, 학업 수준과 독립변수인 학교폭력피해 경험을 투입해 분석하였다. 모델 1의 설명력은 9.3%를 보였고, 조절변수인 학교폭력피해경험($t=16.670, p<.001$)와 통제변수는 성별($t=14.177, p<.001$), 경제수준($t=-5.637, p<.001$), 학업수준($t=-7.078,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모델 2는 통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조절변수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자본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12.3%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p<.001$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조절변수인 가족자본($t=-12.790, p<.001$), 지역사회자본($t=-3.795, p<.001$)과 독립변수인 학교폭력피해경험($t=15.224, p<.001$)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가족 및 지역사회 자본이 높고,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낮아질수록, 청소년의 자살 생각 수준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모델 3은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자살 생각 관계에서 가족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12.3%의 설명력을 보이며,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 수준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4는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자살 생각 관계에서 학교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11.3%의 설명력을 보이며,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학교사회자본의 상호작용 효과($t=-6.507, p<.001$)가 자살 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학교자본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학교 자본이 낮은 집단청소년 일수록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증가할 때 자살 생각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5는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자살 생각 관계에서 지역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10.7%의 설명력을 보이며,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 수준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의 결과를 토대로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한 결과를 토대로 상호작용의 수준에 따라 각각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교자본을 3개의 수준(Mean -1SD, Mean, Mean +1SD)에서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자살 생각 간의 단순 회귀선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표 4

청소년의 온·오프라인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사회자본(가족, 학교, 지역사회)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B(SE)	t	B(SE)	t	B(SE)	t	B(SE)	t	B(SE)	t
(상수)	1.015 (.051)	19.794***	1.736(.079)	21.886***	1.886(.165)	11.398***	.494 (.106)	4.653***	1.247 (.113)	11.019***
통제 변수	성별 (ref. 남)	.217 (.015)	14.177***	.219(.015)	14.349***	.224(.015)	15.473***	.219 (.015)	14.751***	.202 (.015)
	주관적 경제 수준	-.066 (.012)	-5.637***	-.045(.012)	-3.849***	-.045(.011)	-4.000***	-.066 (.011)	-5.854***	-.055 (.011)
	주관적 학업 수준	-.073 (.010)	-7.078***	-.053(.010)	-5.106***	-.045(.01)	-4.541***	-.066 (.010)	-6.564***	-.060 (.010)
	학교 (ref. 중)	.020 (.015)	1.286	.041(.015)	2.706**	.032(.015)	2.162*	.015 (.015)	.967	.017 (.015)
독립 변수	학교폭력피해(A)	.513 (.031)	16.670***	.467(.031)	15.224***	.250(.140)	1.785	1.003 (.085)	11.826***	.488 (.090)
조절 변수	가족자본(B)			-.180(.014)	-12.790***	-.263(.049)	-5.421***			
	학교자본(C)			-.010(.016)	-.634			.227 (.041)	5.498***	
	지역사회자본(D)			-.045(.012)	-3.795***					-.066 (.036)
상호 작용항	AXB				.055(.042)	1.307				
	AXC						.217 (.033)	-6.507***		
	AXD								-.013 (.031)	-.437
Model fit	F=113.329*** adj R ² =.093		F=64.607*** adj R ² =.123		F=116.903*** adj R ² =.123		F=96.043*** adj R ² =.113		F=90.368*** adj R ² =.107	

*p<.05 **p<.01, ***p<.001, B=Coefficients; SE=Standard Err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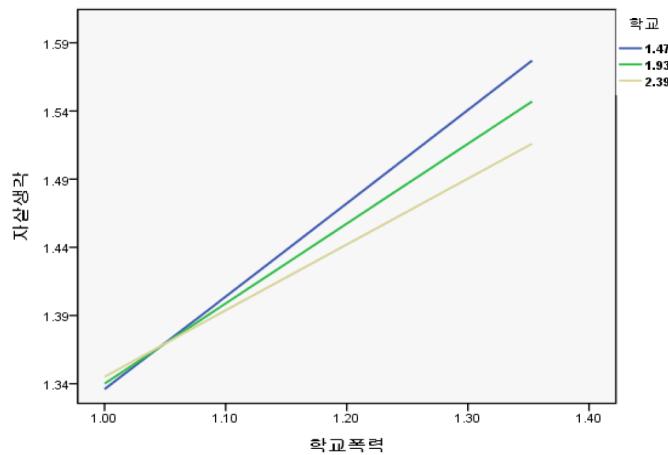


그림 2. 청소년의 온·오프라인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자살 생각 관계에서 학교사회자본 조절효과 그래프

그림 2에 따르면, 학교자본이 낮은 하 집단(-1SD)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효과의 기울기가 비교적 가파르게 나타났으며, 학교자본이 높은 상 집단(+1SD)에서는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타났다. 이는 자살 생각 수준이 증가할수록 학교자본 하 집단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남을 보여주며, 그래프 상에서도 학교자본 하 집단이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교자본은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온·오프라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사회자본(가정, 학교, 지역사회)이 이 관계에서 어떻게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는 청소년이 경험한 학교폭력 피해가 자살 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학교자본이 이 관계에서 중요한 조절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었다.

첫째, 청소년의 온·오프라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자살 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이 자살 생각을 가지는 비율이 높다는 기존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 학교폭력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고, 자아존중감의 저하와 더불어 불안, 우울 등의 감정을 겪게 되며, 이는 자살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에 대한 빠른 개입이 청소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사회자본 중에서 학교자본만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자살 생각 간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나타냈다. 학교는 청소년의 일상에서 중요한 사회적 환경으로 작용하며, 학교 내 지원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을 경우,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청소년이 자살 생각을 가질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의 교사나 상담사의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학교 내 심리적 지원 서비스가 피해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완충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학교자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가정과 지역사회는 이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일 수 있다. 첫째, 가정은 청소년의 초기 사회적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부모의 직접적인 개입이 학교폭력 피해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응이나 지원의 즉시성과 비교할 때, 가정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는 학교폭력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부족하거나,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지역사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살 생각을 가진 경우, 지역사회보다 학교 내에서의 개입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가정과 지역사회는 학교폭력 피해와 자살 생각 간의 관계에서 효과적인 조절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온·오프라인 학교폭력 피해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그 과정에서 학교자본이 중요한 조절 작용함을 밝혀냈다. 청소년기의 학교폭력은 그 피해가 자살 생각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청소년 보호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시급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자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본 연구는 명확히 입증하였다. 따라서 학교는 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학교 내 상담소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보인다. 또한 교사들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상담 기술 훈련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과 지역사회는 또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교자본의 효과가 더 두드러졌다라는 점에서 학교 중심의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지역사회도 청소년의 전반적인 복지와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각종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자살 생각을 낮추기 위한 여러 제언을 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있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다만 사회자본의 다른 요소(가정, 지역사회)의 조절효과는 미미하였음을 확인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자본 외에도 가정과 지역사회 지원의 역할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2022년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최신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자료 분석이기 때문에 응답자의 자기보고에 따른 편향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질적 방법을 통해 청소년들의 경험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주현, 신택수 (2015). 청소년기 스트레스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 연구*, 22(5), 27-51.
- 강현아 (2014). 부정적 사건 경험의 영향: 성별 및 빈곤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2(2), 229-251. doi:10.35151/kyci.2014.22.2.010
- 고혜주 (2016). 사회자본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청구논문.
- 교육부 (2023. 12. 14).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 자료.” 교육부. 세종.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7458&lev=0&m=020402&opType=N&page=1&s=moe&searchType=null&statusYN=W>에서 2025년 1월 5월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3.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 19942호**, 시행 2024. 3. 1.
- 국민일보 (2023. 10. 23.). 청소년 자살마저 세계 1위 절대 안된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6333&code=11171320&cp=nv>에서 2025년 3월 13일에 인출.
- 권문자 (2014). 청소년의 사이버불링과 우울 및 자살사고의 관계: 부모양육태와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보영, 이정숙 (2009). 청소년 자살생각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9(5),
651-661. doi:10.4040/jkan.2009.39.5.651
- 김상준 (2004). 부르디외, 콜만, 페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판. *한국사회학*, 38(6), 63-95.
doi:10.35151/kyci.2014.22.2.010
- 김수빈 (2016). **가출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지지의 조절
효과: 비가출 청소년과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수연, 최진아 (2018).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3(2), 73-88. doi:10.23931/kacp.2018.13.2.73
- 김순규 (2008).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9, 66-93.
- 김영지, 유설희, 김수진 (2016).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2016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통계**.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정유 (2020).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 만족도
조절효과와 관련하여. *한국엔터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4(8), 477-485. doi:10.21184/jkeia.2020.12.14.8.477

- 김치건 (2018).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족탄력성, 무망감, 우울, 자살생각 간 구조적 관계. *한국 아동복지학*, 61, 51-80. doi:10.24300/jkscw.2018.3.61.51
- 나지훈, 성혜연, 이성규 (2023). 중학생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자살생각과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와 지지적 부모 양육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30(2), 227-256. doi:10.21509/KJYS.2023.2.30.02.227
- 문동규 (2011).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련된 변인의 메타회귀분석: 유발 및 억제변인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원, 윤현정 (2023). 청소년의 사이버폭력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부모양육 태도의 조절효과. *정신간호학회지*, 32(4), 471-481. doi:10.12934/jkpmhn.2023.32.4.471
- 박성준 (2019). 청소년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7(1), 174-203. doi:10.24301/MHSW.2019.03.47.1.174
- 방송통신위원회 (2023).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2023. 3. 24.
- 방서현 (2023). 중고등학생의 사이버불링피해경험과 자살생각 및 우울의 관계: 사회적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백진숙 (2013).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 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와 자원 봉사활동의 조절효과.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고운 (2021). 청소년 자살 원인 탐색 및 예방 대책 연구: 청소년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서정아, 조홍식, 장주희, 이재연 (2012).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서희웅 (2020). 학교폭력 가해, 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과 우울 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현옥, 최성열, 박아첨 (2010). 청소년의 가정환경의 지각된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과 자아 정체감의 관계분석. *청소년학연구*, 17(2), 109-129.
- 심혜인, 김동현, 곽대경 (2020).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우울,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부모 방임수준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범죄학*, 14(1), 101-121. doi:10.29095/JKCA.14.1.6
- 양방원 (2016). 중학생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조절효과분석.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선아 (2022). 사이버폭력피해경험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3(5), 2445-2454.
- 유숙경, 박현선 (2021). 부모학대 경험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중학생의 자살생각과의 관계. *상담심리교육복지*, 8(3), 25-40. doi:10.20496/cpew.2021.8.3.25

- 이병도, 최응렬 (2016).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과 사이버 폭력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8(4), 67-90.
- 이상준 (2016). 청소년의 피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적 보호요인의 상호작용 효과. *청소년복지 연구*, 18(1), 1-22. doi:10.19034/KAYW.2016.18.1.01
- 이선영, 송주연 (2019).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 학업성취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교육방법연구*, 31(1), 21-43. doi:10.17927/tkjems.2019.31.1.21
- 이유경 (2020). 청소년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응택, 이은경 (2016). 중학생의 학교폭력피해경험, 우울,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46, 61-85. doi:10.17854/ffyc.2016.10.48.61
- 이재명, 공태명 (2010). 가정, 학교,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청소년 일탈행동. *사회과학연구*, 17(3), 61-82.
- 이정선 (2005). 사회자본 구축을 통한 농어촌 학생의 학업격차 개선방향. *농업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37(1), 131-150
- 이종익, 최선희, 박주한, 이현규 (2023). *2023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연구*. 서울: 푸른나무재단
- 임시온 (2023).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한국교통대학교글로벌 융합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선희, 이미애 (2010).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 연구: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8), 27-55.
- 장지현 (2018).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지역사회환경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부산 광역시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9(2), 351-364. doi:10.22143/HSS21.9.2.29
- 정지선 (2021).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학교폭력 피해 유형, 부모방임, 외로움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2(1), 2645-2660.
- 전진호, 이성규 (2022).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의 매개효과와 사회적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 연구*, 29(8), 365-392. doi:10.21509/KJYS.2022.08.29.8.365
- 조계영 (2021).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의 연관성: 지역지표를 활용한 다수준분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연직 (2018).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통계청 (2023).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살시도율 <https://www.kdca.go.kr/yhs/>에서 2025년 1월 10일에 추출
- 통계청 (2023). 2022년 사망원인.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18&act=view&list_no=427216. 2024 12월 22일 추출
- 하진의 (2014).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부모애착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3), 55-75
- 황아리영 (2020). 청소년 차별피해 경험의 차별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현의숙, 황혜정 (2019). 초등학교 고학년생이 지각한 교사애착과 또래애착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검증. *학습자교과교육연구*, 19(5), 451-472. doi:10.22251/jlcci.2019.19.5.451
- 홍성희 (2022).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자살생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이중매개효과. *교정복지연구*, 76, 193-212. doi:10.35422/cwsk.2022.76.193
- Bakken, N. W., & Gunter, W. D. (2012). Self-Cutting and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Gender Differences in the Causes and Correlates of Self-Injury. *DEVIANT BEHAVIOR*, 33(5), 39-356. doi:10.1080/01639625.2011.584054
- Bridge, J. A., Goldstein, T. R., & Brent, D. A. (2006). Adolescent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 372-394
- Brunstein, A., Marrocco, F., Kleinman, M., Sam, I., & Gould, M. (2008). Peer victimization, depression, and suicidality inadolescents.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28(1), 1-23
- Coleman, J. S. (2000).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in Lesser, E(ed.), *Knowledge and Social Capital: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Woburn. MA: Buttesorth-Heinemann.
- Gould, M. S., Greenberg, T. E., Velting, D. M., & Shaffer, D. (2003). Youth Suicide Risk and Preventive Interventions: A Review of the Past 10 Yea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2(4), 386-405.
- Lazarus, R. S., and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 Lyon, M. E., Benoit, M., O'Donnell, R. M., Getson, P. R., Silber, T., & Walsh, T. (2000). Assessi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risk for suicide attempts: Attachment theory. *Adolescence*, 35(137), 121-134

- Maris, R. W., Berman, A., & Silverman, M. M.(Eds). (2000). *Comprehensive textbook of suicidology*. New York: Guilford Press.
- Nock, M. K., Green, J. G., Hwang, I., McLaughlin, K. A., Sampson, N. A., Zaslavsky, A. M., & Kessler, R. C. (2013). Prevalence, correlates, and treatment of lifetime suicidal behavior among adolescents: Results from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Supplement. *JAMA psychiatry*, 70(3), 300-310. doi:10.1001 /2013.jamapsychiatry.55
- Smith, P. K. (2012). Cyberbullying and cyber aggression. In Jimerson, S., Nickerson, A., Mayer, M. J., & Furlong, M. J. (Eds.), *Handbook of school violence and school safety: International research and practice* (2nd ed.). New York, NY: Routledge
- O'Connell, H., Chin, A. V., Cunningham, C., & Lawlor, B. A. (2004). Recent developments: Suicide in older people. *BMJ*, 329(7471), 895-899. doi:10.1136/bmj.329.7471.895
- Turner, H. A., Finkelhor, D., Shattuck, A., & Hamby, S. (2012). Recent victimization exposure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66(12), 1149-1154. doi:10.1001/archpediatrics.2012.1549
- Watt, T. T., & Sharp, S. F., (2001). Gender differences in strains associated with suicidal behavior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3), 333-348.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experiences of online and offline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and suicidal ideation: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capital (family, school, and community)

Jang, Ayeong*·Kim, Soongyu**·Li, Minghong***·Park, Shinae****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online and offline school violence on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adolescents and explores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capital in family, school, and community contexts. Using data harvested from the 2022 Survey on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N = 5,860), the findings reveal that victimizat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Among the three types of social capital, only school-based capital significantly buffered this relationship. Family and community capital showed no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These results highlight the critical role of school environments in protecting adolescents' mental health and underscore the need for school-centered interventions in suicide prevention.

Key Words: online and offline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s, suicidal ideation, family, school, community

* Jeonbuk National University, Ph.D. student, Dept. of Social Welfare, first author

** Jeon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Corresponding author

*** Jeonbuk National University, Ph.D. candidate, Dept. of Social Welfare, Co-author

**** Woosuk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and Social Welfare, Co-author